태초엔 카오스가 있었다. 질서가 없는 덩어리. 자연이라는 신이 모든 것을 분리하고 혼돈을 정리함.

16pg 바람의 신: 동풍 에우로스(새벽의 땅의 거주), 서풍 제피로스(따뜻한 해변), 북풍 보레아스(아퀼로, 무서움), 남풍 노토스 (아우스테르, 비를 몰고옴, 수염은 비에 젖어 늘 무겁고 백발에선 물이 들었고 눈썹은 안개, 옷과 깃에서는 물이 흐름), 아이테르(푸른 하늘, 무게가 없고 지상적인 것이 더럽힐 수 없다)

신에 의해 질서가 잡히자 생명이 생기고 이후에 인간이 탄생(신이 신의 씨앗으로 만들었을 수도,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흙을 강물에 이겨 빚었을 수도)

시대 순서: 황금의 시대(법 없이도 잘 삼, 대지도 농사 없이도 먹을 것 풍부, 늘 봄, 우유와 넥타르의 강), 은의 시대(크로노스[사투르누스]가 갇히고 제우스[유피테르]가 지배하자 시작. 황금보다는 못해도 청동보다 나음, 제우스가 사계 제작, 인간은 집 제작, 농사 시작[소 코뚜레]), 청동의 시대(조금 거칠어 무기가 제작됨), 철의 시대(천박한 금속의 시대, 악행이 시작. 덕목 기피. 땅의 사유화. 지하세계에 있는 것 까지 파냄. 전쟁 시작, 아스트라이아[정의의 여신]도 떠나 처녀자리가 됨. 거인 기간테스는 올림포스를 노려 산을 타다가 제우스가 터쳐서 산에 깔려죽음, 이 피가 인간을 만든 걸 수도 있다.)

우유의 길(Milky Way): 은하수, 맑은 날에 인간에게도 보이는, 신들이 제우스의 신궁으로 가는길. 양쪽으로 12신의 신궁이 놓여있다

뤼카온의 잔치: 인육파티. 뤼카온은 인신공양을 한 아르카디아의 첫왕으로, 자신의 딸 칼리스토의 아들(아르카스라곤 하는데 후에 아르카스는 멀쩡하게 등장함; 굳이 아닌듯)을 바치다 제우스의 분노를 사 이리가 되었다. 후 참회했으나 망국이 된 아르카디아 무너진 자신의 가정을 보고 버티지 못해 계속 이리로 삶.

27p 뤼카온과 인간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제우스가 둔갑하여 내려감. 뤼카온의 집에 들어가 신기를 내비치니 백성들이 그를 대접하고 기도를 했으나 뤼카온은 제우스가 자는 동안 죽이려 하여 시험해보려 함. 그 다음 백성 중 한명을 죽여 잔칫상을 차림. 제우스가 빡쳐서 다 뿌시니까 뤼카온이 도망치다 이리가 되어버림. 이걸 계기로 제우스는 인간을 모두 처단하기로 함.

스틱스: 지하세계 그 자체 or 그곳에 흐르는 강. 이곳에 한 맹세는 절대 지켜야 함 신도

올림포스산: 신궁이 있던 것으로 믿어졌던 산. But 아마도 기간테스 침략 당시 윗부분을 부순듯. 기간테스가 쌓은 펠리온 산 위의 오사산을 떨어뜨리고 기간테스가 펠리온에 깔림.

뉨페: 요정, 파우누스와 실바누스: 전원의 신들인 목양신, 사튀로스: 반인반양의 모습을 한 음탕하나 순진한 목신.

마이날로스산, 퀼레네산: 들짐승이 우글거림

푸리아이: 복수의 여신. 광포한 손. 3 여신으로 구성

대홍수: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한 제우스는 벼락을 치려 했으나 그러면 불기둥이 천궁을 삼킬까 걱정되어 큰 비를 내리고 강과 바다가 범람하게 하여 세상을 잠기게 함. 짐승과 인류의 대부분은 물에 빠져 죽고, 겨우 홍수를 견딘 사람도 오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아사함.

퀴클롭스: 둥근 눈, 천궁의 대장장이들인 외눈박이 거인 세 형제. 제우스의 번개를 만들었다.

운명의 서엔 언젠가 바다와 땅과 창궁이 불덩어리가 되고 엄청나게 큰 우주가 내려앉아 땅은 물론 천궁까지 폐허가 될 날이 올 것이라 쓰여있다.

헤라: 제우스의 아내, 일곱 색 색동옷을 입은 이리스(무지개)를 심부름꾼으로 씀. 질투의 여신이라 질투를 많이 함; 신조는 공작으로, 자신의 명을 받들다 죽은 아르고스의 백개의 눈을 공작의 깃털에 박음. 자식이 있는데, 제우스와 함께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전설이 있음.

포세이돈: 바다의 신, 제우스의 형제. 강신도 모두 다스림. 삼지창을 사용.

네레이스: 네레이데스. 해신 네레우스(포세이돈 아님. 바다 그 자체)의 딸들. 쉰 혹은 백명에 이름.

데우칼리온과 퓌라: 홍수가 난 다음 포키스(원래 기름진 땅이었지만 홍수 이후로는 사방이 물뿐인 바다의 일부가 됨)의 파르나소스 산의 꼭대기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의 딸 퓌라(둘은 정말 의로웠다)가 기도함. 이를 보고 제우스가 물을 없애주었고, 세상에 둘만 남아 테미스의 신전에서 기도하니 “내 신전에서 나가 너희 머리를 가리고 의복의 띠를 푼 연후에 너희 크신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지거라” 하여 거절하다가 가이아의 뼈인 돌을 어깨너머로 던져보니 사람이 탄생. 힘드는 일도 해내는 강인한 족속인 탓은 이래서 일수도 있다.

테미스 여신: 만물의 이치를 주관하는 여신

트리톤: 포세이돈의 아들, 뱃길의 안내자. 어깨엔 조개가 붙어있고 뿔고둥 나팔로 파도의 신들과 강신들에게 군호를 보낼 수 있음.

왕뱀 퓌톤: 대홍수 이후 불과 물이 합쳐서 습윤한 온기가 대지에 머물러 조화롭게 생명을 창조함. 기존에 있던 것도 탄생하고 새로운 것도 탄생했는데 이때 대지가 거대한 퓌톤을 창조해냄. 누우면 산자락 하나를 덮을 만큼 컸던 퓌톤은 아폴론이 델포이에서 화살통을 비워가며 왕뱀에게 상처에서 독액을 모두 쏟을 때까지 공격해 처치함. 아폴론은 이 영웅적인 행적을 잊지 않도록 퓌티아 대회를 창시함. 퓌티아 대회에선 여러 가지 겨루기가 일어남. 씨름, 달음박질, 병거 경주 등을 하여 이긴자에겐 떡갈나무 잎으로 된 관을 줌(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이 없었기 때문.)

아폴론: 포이부스(찬란한 자). 제우스와 레토의 사이에서 난 아들로 음악, 의술, 궁술, 예언, 태양의 신. 머리카락이 흘러내릴땐 퓌티아 대회의 떡갈나무 관을 씀. 파이안, 고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짐. 보라색 용포를 입고 에메랄드 보좌에 앉음. 보좌 좌우로 날, 달, 해, 세대, 시간, 사철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음. 신전 목록이 47pg에. 이외인 것은 변신이야기에서 헬리오스와 동일시 된다는 것 (85pg). 헬리오스는 휘페리온(광명의 신,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식)과 테이아(창공의 신,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식)의 사이에서 태어난 태양신.

에로스: 쿠피도, 큐피드. 신들의 계보에선 카오스와 같이 태어났다 보고, 변신 이야기에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봄.

월계수가 된 다프네: 아폴론이 에로스를 업신여김. 자신은 활로 커다란 괴물도 잡고 개 잘쏘는데 에로스의 작은 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에로스 빡쳐서 파르나소스 산 꼭대기에 가 황금촉이 달린 화살로 아폴론을 쏴 사랑에 빠지게, 납촉이 달린 화살로 다프네를 쏴 사랑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만듦. 안 그래도 결혼에 관심이 없는 다프네였는데 화살도 맞아서 아폴론의 구애로부터 계속 도망침. 그러나 아폴론이 끈질기게 따라가 괴롭히자 잡히기 직전에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월계나무가 되어버림. 아폴론은 이 나무를 끌어안으며 머리, 수금, 화살통, 궁전 문 등의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시들지 않는 월계관이 될 것이라 약속함. 여기에는 다프네도 아마 고개를 끄덕임.

다프네: 페네이오스의 딸 요정. 댕기 하나로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숲을 다니며 짐승을 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음.

페네이오스: 강의 신. 강의 원천 깎아지른 절벽 한가운데 있는 석굴에 앉아 물결과 그 흐름 안에 기거하는 요정들을 다스림. 페네이오스 나라의 큰 강 다섯 줄기, 스페르케오스, 에니페우스, 아피다노스, 암프뤼소스, 아이오스가 발원함.

51pg 이오, 아르고스, 쉬링크스 이야기: 페네이오스 산하의 이나코스강의 신에겐 요정 딸 이오가 있었다. 어느날 제우스가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반해 구애했으나, 이오가 도망치려 하자 주변을 구름으로 어둡게 하여 가두고 사랑을 나눔. 대낮에 구름이 있는걸 이상하게 생각한 헤라는 필시 제우스의 뻘짓일거라 생각하여 쫓아가 따지고 물음. 제우스가 들키기 전에 이오를 아름다운 암소로 바꾸어버렸으나, 헤라가 암소를 달라 함. 어쩔 수 없이 주게되었고, 헤라는 이 암소를 아레스토르의 아들 아르고스에게 지키도록 맡김. 이오는 흙탕물을 마시고 나뭇잎을 먹으며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보고 열심히 핥고 난리치다가 눈물을 흘리며 발굽으로 땅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써 알림. 이를 본 아버지는 슬퍼했지만 아르고스가 데려가서 어쩔 수 없었음. 이를 가엾게 생각한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시켜 아르고스를 처치하고 이오를 구하라 명함. 헤르메스는 양치기인 양 갈대 피리를 불며 아르고스에게 접근해 피리소리가 마음에 든 아르고스가 쉬고 가라고 함. 헤르메스는 아르고스를 재우기 위해 피리를 얻게 된 이야기, 쉬링크스의 이야기를 해줌. 쉬링크스는 아르카디아의 한 마을에 있던 하마드뤼아데스로 콧대가 아주 높아 수많은 사튀로스와 정령의 구애를 거절한채 아르테미스 처럼 입고 행동하며 살아감. 무기도 활로 같았지만 쉬링크스는 각궁, 아르테미스는 금궁인게 달랐음. 어느날, 그녀가 마음에든 목신 하나가 말을 걸어왔고, 그녀는 너무 싫어 도망치다가 잡힐 것 같으니 강가의 자매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 간청함. 쉬링크스는 잡히기 직전 갈대로 변했고, 이 갈대에서 나는 소리에 반한 목신은 갈대들을 밀랍으로 나란히 붙여 시링크스, 혹은 팬 플루트라 불리는 악기를 만듦. 이야기가 끝나니 아르고스는 자고 있었고 헤르메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임. 헤라는 이를 가엾이 여겨 아르고스의 눈을 수습해 공작에게 달아주었고, 푸리아이를 불러 이오를 미치게 함. 이오는 제우스를 원망하며 환란을 거두어 달라 기도했고, 제우스는 헤라에게 사과하며 이오가 마음고생 시킬일이 없을 것이라 스틱스에 맹세함. 사람으로 돌아온 이오는 후에 여신이 되어 흰옷의 신관을 거느리고 에파포스(아마 제우스의 씨)라는 아들을 낳음.

이오: 강의 신의 딸인 요정. 제우스에 의해 암소가 되었다가 헤라의 저주를 받고 미치게 되었으나 후에 용서받고 여신이 되어 에파포스를 낳고 이집트의 풍요의 여신인 이시스가 됨. 이시스 신전의 신관들은 흰 옷을 입고 이집트 땅에는 이오 신전과 에파포스 신전이 나란히 있음.

아르고스: 눈이 백개 달린 괴물. 잠들때도 눈은 두개만 감아 절대 감시를 피할 수가 없음.

플레이아데스: 칠요성이라 불리는 별무리. 성단명 이기도 하며 동시에 거인 아틀라스의 7명의 딸들이자, 그 중 마이아가 제우스와 결합하여 헤르메스를 낳음.

헤르메스: 머큐리, 요비스, 전령신. 날개 달린 가죽신, 초승달 모양의 검, 카두세우스(두마리의 뱀이 얽힌 지팡이, 아마 최면장의 역할을 하는 듯. 산것을 재우거나 깨울 수 있음)를 들고 제우스 등 신들의 전령을 나른다. 퀼레네에서 태어남.

쉬링크스: 하마드뤼아데스, 각궁을 들며 아르테미스를 동경해 남자를 만나지 않고 지내다가 목신에게 잡힐 뻔하자 자매들에 의해 갈대로 변해 팬 플루트가 됨.

하마드뤼아데스: 나무의 요정으로 그 나무와 운명을 같이함.

62pg 파에톤 이야기: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 파에톤은 에파포스에게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랑하다가 증거가 없다고 모욕당함.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클뤼메네에게 자신, 자신의 의부, 누이의 행복을 걸고 친부를 밝혀달라 요구함. 클뤼메네는 벌떡 일어나 그가 아폴론의 아들이라 맹세하고, 땅의 지경, 솟아오르시는 곳, 아폴론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함. 파에톤은 에티오피아, 인도를 지나 찾으러 떠남. 파에톤은 태양신의 궁전에 도달해(참고로 여기에 아폴론 궁전 묘사 있음.) 아폴론을 만남. 빛나는 아폴론은 에메랄드 보좌에 앉아있었다. 파에톤은 자신에게 아폴론이 그의 아버지라는 증표를 달라했고, 아폴론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스틱스에 맹세 함. 파에톤은 즉시 태양수레를 하루만 자신이 끌겠다 했고 아폴론은 계속 말렸지만 안통함. 제우스 조차도 태양 수레는 끌지 못하며, 아침 길머리는 가파르고 어쩌고의 힘든 묘사가 있음. 파에톤은 뜻을 굽히지 않고 (태양마차 묘사 있음) 몰러 감. 아폴론은 타지 않도록 아들의 얼굴에 신고를 발라주고 태양마차 꿀팁좀 줌. 천계의 다섯 권역을 곧장 가로지르지 말고, 세권역의 경계의 휘어진 샛길을 타라. 이러면 설한풍의 극남 극북권역을 피할 수 있다. 너무 높거나 낮게 하지 말것. 창궁을 태우거나 대지를 그을릴 수 있음. 오른쪽엔 똬리튼 뱀, 왼쪽엔 신들의 제단들이 있다. 출발한 파에톤은 거지같이 몰아서 고삐도 놓쳐 천마들이 맘대로 감. 땅 다 탐. 여기 강이랑 산 목록 개많이 나옴. 에티오피아 사람들 피부가 탄게 이때. 보이오티아 땅이 디르케 샘, 라르고 땅이 아뮈모네 샘, 에퓌레 땅이 피레네 샘을 잃은게 이때. 하여튼 산은 다 불나고 강은 다 마름. 대지의 틈으로 햇빛이 타르타로스까지 비쳐 명왕과 왕비가 놀람. 네레우스와 도리스 부부는 동굴에 숨어서도 열기 때문에 진땀 뺌. 포세이돈 마자 뜨거워 팔을 물밖으로 뺄 수 없었음. 가이아는 왜 벼락으로 안때리고 욕보이냐, 열심히 살았는데 왜그러냐 함. 결국 제우스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천궁 꼭대기에 올라가 벼락을 파에톤에게 던져 죽임. 에리다노스강(오케아노스와 테튀스의 아들 에리다노스가 다스리는, 세계의 먼 서쪽에 있다 믿어진 강. 에리다노스와 클뤼메네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파에톤의 외숙)에 떨어져 죽고 헤스페리아(저녁의 나라, 즉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요정들이 장례를 치뤄줌. 그날 하루동안 아폴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지를 그을린 불길이 세상을 밝혀주었다.

가이아: 어머니 대지. 처음 등장한 세개의 신중 하나로 혼자서 다양한 신들을 낳고 그 신들과 교합하여 또 다른 신들을 낳음. 그럼에도 제우스를 전능하다 평가하고 높임을 씀.

아틀라스: 신들의 전쟁 시절에 제우스에게 저항한 벌로 하늘 축을 어깨로 받치고 있는 거인

네레우스: 바다의 신으로 가이아와 폰토스(얘도 바다의 신)의 자식. 오케아노스와의 차이는 오케아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식이며 대양에 가까움.

무사이: 뮤즈, 예능의 여신들. 뭐 개많은데 신들의 계보에서 봐라.

12궁: 열두자리로 무서운 황소, 하이모니아 켄타우로스, 사자, 독을 품은 전갈 등. 전갈과 게는 집게로 양쪽에서 공격함. 똬리튼 뱀은 평소엔 얌전하나 태양마차가 가까워졌을 때 포악해짐. 목동은 태양마차의 쟁기에 걸려 넘어짐.

천마: 아폴론의 태양마차를 끄는 말들. 숨결마다 불을 뿜으며, 암브로시아를 먹고 지냄. 퓌로이스, 에우오스, 아이톤, 플레곤

호라이: 때(아마 시간)의 여신들. 아폴론의 태양마차의 천마들을 끌고 나오는 역할.

에오스: 아우로라, 새벽 혹은 새벽의 여신

테튀스: 바다의 여신.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 태어난 티탄 12신 중 하나로, 아폴론의 태양 마차가 내려갈 때 물속으로 받아 줌. 오케아노스의 아내. 클뤼메네의 어머니로 파에톤의 할머니.

헤파이스토스: 불카누스, 렘노스 신, 물키베르, 불막이. 아폴론의 태양수레도 얘가 만듦. 어미 없는 아들 에릭토니오스의 아버지.

루키페르: 금성, 샛별, 빛을 부르는 자. 별의 대열을 거느림. 실제로 루시퍼가 여기서 따온 것임.

뤼케: 티케, 튀케, 포르투나. 행운의 여신.

84pg 헬리아데스의 변신: 파에톤의 죽음을 슬퍼한 클뤼메네는 무덤을 찾아가 슬퍼함. 헬리아데스(헬리오스와 클뤼메네의 딸, 즉 파에톤의 누이들. 파에투사, 람페티에 등의 다섯 자매)들도 그녀만큼 슬퍼하며 4일동안 그곳에서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딸들은 나무로 변해버리기 시작했고, 클뤼메네가 이를 막으려 입맞춤도 해보고 나무도 뜯어봤지만 수액 대신 피가 흘렀으며, 결국 전체가 나무가 되어버림. 그 나무들의 껍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태양빛에 굳은 것이 호박이 되어 강물에 떨어짐.

86pg 백조가 된 퀴크노스: 스테넬로스의 아들 퀴크노스는 외가쪽으로 파에톤과 일가붙이였고, 파에톤과 몹시 친했다. 그는 리구리아 땅의 왕이었으나 파에톤의 죽음을 듣고 왕국을 버리고 묘지로 와 울며 슬퍼함. 그러던 와중 목소리가 갈라지고 가늘어지고, 깃털이 돋아나며 물갈퀴가 생겨 백조가 되버림. 때문에 백조는 하늘과 제우스를 믿지 않고, 늪지와 호숫가를 좋아한다(벼락의 불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 이와 같이 아폴론도 늘 슬픔에 잠겨 빛을 싫어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화창한 날을 싫어하며 지냈다. 불평도 했는데, 자신의 일을 어지간히 했으며 신물이 나고, 꼬우면 다른 신이 몰라 함. 제우스가 몰게 된다면 모는 동안 자식을 빼앗은 벼락을 못 쥘 것이며, 거친 천마를 느껴보면 그것을 못 다스리는게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함. 결국 신들이 간청하고 제우스도 사과하며 협박해 결국 다시 몰게 되었으나, 아들의 죽음이 천마의 책임이라 생각해 채찍과 막대기로 때릴 정도로 성미가 사나워져 있었음.

88pg 칼리스토를 범한 유피테르: 파에톤의 화변 이후 천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제우스는 내려가 하계에도 문제가 없는지 보았다. 그러던 와중 아르카디아의 한 처녀, 칼리스토를 보고 욕망을 느낀다. 칼리스토가 쉬려 숲속에 들어갔을 때 제우스는 디아나로 둔갑하여 접근하고, 범함. 칼리스토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만약 이를 헤라가 봤다면 잔혹하게는 벌하지 못했을 만큼 저항했으나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겐 의미가 없었다. 제우스는 천계로 올라가 버리고, 칼리스토는 자신이 당한 것을 목격한 숲이 싫어 활과 화살통마저 놓고 도망친다. 이후 아르테미스와 요정들을 만나 그녀의 뜻대로 함께 다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속으로 몹시 괴로워함. 아홉 밤 동안 함께 다니다 시냇물에서 멱을 감자는 아르테미스의 명에 의해 알몸이 드러나고 처녀를 잃었음이 드러나자 내쳐짐. 후에 아르카스(아르카디아 사람)라는 아들까지 태어나니 헤라는 징벌을 내렸다. 자식을 배는 것 부터가 능욕스러운데 그것을 낳아 한 번 더 능욕했다는 것. 때문에 칼리스토를 곰으로 바꾸어버리고 칼리스토는 숲속 여러곳을 헤매며 사냥꾼에게 쫒기기도 하고, 산짐승과 싸우거나 도망치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리를 만나서도 기겁을 하며 살아감.

칼리스토: 아르테미스의 시종인 요정으로, 뤼카온 왕의 딸. 아르테미스에게 가장 사랑받는 요정. 장신구로 옷을 단정하게 여미고 흰 댕기로 머리를 질끈 맨 채 창이나 활을 들고 다님.

아르카디아: 지역명으로 제우스가 사랑하는 땅. 제우스는 크레타에서 태어났다는 전승도 있고 아르카디아에서 태어났다고도 한다.

아르테미스: 다이애나, 디아나. 사냥, 달의 여신. 아폴론의 누이. 잔인할 정도로 깔끔한 여신으로 결혼을 사갈시하고 경우에 따라 출산을 방해하기도 함. 처녀로만 이루어진 시종, 요정 동아리를 몰고 다님. 가르가피에라는 소나무와 삼나무로 덮인 골짜기의 성소가 있음. 그곳의 아름다운 동굴의 맑은 샘에서 사냥 다니다 지치면 몸을 씻음. 다양한 시종들이 있으나 구름, 풀, 칼집, 질주, 물방울(네펠레, 휘알레, 라니스, 프세카스, 피알레)이라는 이름의 시종들이 있음, 아마 신격 반영.

95pg 별이 된 모자: 아르카스가 열다섯이 되자(자신의 어머니 칼리스토에게 무슨일이 생긴지는 모른 채 살아옴) 에뤼만토스산에서 짐승을 잡다 곰이 된 어머니와 마주침. 칼리스토는 아들을 알아채고 걸음을 멈춘채 빤히 보았지만, 아르카스는 아예 모르고 겁을 먹은채 몸을 사리고 있다가 더 다가오면 죽일 셈이었음. 살모의 대죄를 막기 위해 이를 본 제우스가 돌개바람을 시켜 둘을 빈 하늘로 옮겨 두개의 별자리(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로 박아주었다. 이를 본 헤라는 개빡쳐서 백발의 해신 오케아노스와 테튀스(이 둘은 헤라를 길러준 양부모이다)를 찾아감. 제우스가 자신을 욕보이고 자신이 벌을 준 대상을 하늘에 보내 명예를 누리게 하는데, 누가 자신에게 죄짓기를 망설이겠냐며 불평함. 후에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면, 두 곰자리 별이 바다에 드는 것을 금해달라 청하고 두 신은 그렇게 하겠다 함. 때문에 그 둘은 바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이 계속 북극의 하늘만을 맴돌게 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헤라의 분노가 사그라들자 칼리스토의 꼬리가 바다에 닿게 되었다.

97pg 까마귀 깃털이 검어진 내력: 본래 큰까마귀는 몹시 하얬음. 근데 공작이 아르고스의 눈을 박게 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까매짐. 코로니스(애초에 까마귀 라는 뜻)라는 아주 예쁜 처녀는 아폴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동시에 부정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큰까마귀는 이를 보고 아폴로에게 응징하도록 할 셈으로 알리러 갔다. 가는 도중 까마귀를 만나 그에게서 알리지 말라는 경고를 들음. 까마귀도 본래 아테나의 신조였으나 아테나가 에릭토니오스라는 어미없는 아이를 케크롭스왕(도시 국가 아테나이의 시조, 반은 인간의 모습, 반은 뱀의 모습)의 세 딸들에게 맡기고,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 함. 두 공주, 판드로소스와 헤르세는 그대로 했으나 셋째 아글라우로스는 뚜껑을 열어보고 아기와 똬리튼 뱀을 봄. 이를 목격한 까마귀는 고자질하러 아테나에게 말했으나 벌로 신조 자리를 부엉이에게 뺏김. 그리고 까마귀는 원래 코로네우스의 딸, 포키스의 공주였으나 바다의 신이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구애함. 까마귀는 싫다고 했는데 쫓아오자 아테나에게 도와달라 해서 아테나가 까마귀로 바꿔 버림. 그리고 부엉이는 자신의 아버지의 침대에 끌려 들어가 이를 창피해해 날빛이 있을때는 날지 않고 밤에만 난다, 혹은 다른 새들에게 쫓겨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함(아마 까마귀는 혼이 나고도 고자질 하거나 말많은 습관을 못고친듯.) 큰까마귀는 무시하고 아폴론에게 가서 고자질 함. 아폴론은 빡쳐서 활로 코로니스를 죽임. 근데 가혹했다고 생각해서 후회했지만 늦었고, 코로니스가 화장 될 때 복중에 자신이 끼친 자식이 있다는 걸 알고 불에서 아기(아스클레피오스, 의학의 신)를 꺼내어 케이론에게 맡김. 큰까마귀는 아폴론에게 벌을 받아 다시는 흰 새 축에 들지 못하게됨.

아테나: 팔라스 여신, 미네르바. 제우스와 레아의 딸. 지혜와 승리하는 전쟁의 여신. 본래 까마귀가 신조였으나 사건으로 인해 부엉이(밤새, 뉙티메네)로 바꿈. 그녀를 기리기 위해 팔라스 축제도 있음. 숫처녀들이 꽃바구니에 거룩한 제물을 담아 이고 신전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의례. 아마 갑옷 입음. 트리톤에서 태어나 곧잘 트리토니아, 트리톤의 처녀라 불림. 아테나이는 아테나 여신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곳을 지배함

104pg 말이 된 오퀴로에: 아스클레피오스를 맡게 된 케이론에겐 같은 반신반마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카리클로라는 요정에게서 얻어 오퀴로에 강가에서 태어나 오퀴로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갖가지 기예를 배우고 예언자의 재간까지 배우게 됨. 그녀는 신기가 오르자 아기와 아버지의 미래를 예언하고, 직후에 운명의 여신들에게 (혹은 하늘에게) 분노를 사 말이 되버림. 근데 예언들은 현실이 됨.

케이론: 많은 영웅을 길러 낸 반인반마의 현자. 딸 오퀴로에가 있었으나 말이 되버림. 필뤼라의 아들.

오퀴로에: 케이론의 딸. 예언가. 말이 되버림.

107pg 수다쟁이 돌이 된 바투스 노인: 딸이 변해버린 케이론은 아폴론에게 돌려달라고 빌었으나 아폴론도 제우스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을 뿐더러 애초에 그때 인간 세상에 귀양 와 있어 도와줄 수 없었음. 아폴론은 그때 코로니스를 잃은 슬픔을 시링크스로 달래며 소일 하고 있었음. 그가 가축 무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무리가 멀어짐. 그걸 본 헤르메스는 손을 써 이들을 모두 감추어버림. 아무도 못봤는데 주변에 있던 바투스 노인이 그걸 봄. 그래서 헤르메스는 아무말도 하지 말라 하며 소 한마리를 주고 약속 받음. 그를 시험해 보려고 헤르메스는 자리를 떠났다가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여 돌아와 노인에게 소 두마리를 줄 테니 봤냐고 물음. 노인은 즉시 대답해버렸고, 헤르메스는 웃으며 노인을 단단한 돌로 만들어버림. 그는 시금석이 되어 거짓말하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함.

110pg 메르쿠리우스와 헤르세: 헤르메스는 목적지로 가다가 팔라스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위를 맴돔. 이때 매와 비슷. 돌다가 정말 예쁜 헤르세를 보고 반해 자신을 꾸미고 궁전으로 감. 헤르세는 아테나가 맡긴 아기를 들여다본 세 자매 중 하나. 궁전에서 아글라우로스와 마주쳐 헤르세를 만나는 것을 도와달라 했는데 아글라우로스는 돈달라하고 거절하자 헤르메스를 쫓아내버림.

포이베: 티탄 시대의 달, 신탁의 여신

113pg 질투의 화신이 된 아글라우로스: 아테나는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아이를 보고, 이제는 헤르메스의 앞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아글라우로스를 용서할 수 없어 젤로스를 찾아감. 아테나의 명을 받은 젤로스는 아글라우로스의 마음속에 질투의 독을 퍼뜨리고, 그녀는 자연스레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질투의 분노를 마음속에 품음. 헤르세를 만나러 온 헤르메스를 막고 그가 나가기 전까지는 문 앞에서 꼼짝도 안하겠다며 드러눕자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돌이 됨.

117pg 소로 둔갑한 유피테르와 에우로페: 일이 끝나고 헤르메스는 날아올랐는데, 제우스가 시돈에 가서 가축 무리를 해변으로 내몰라는 명을 내려 즉시 그대로 함. 제우스는 그 무리에 들어가 아름다운 소로 둔갑하여 에우로페를 꼬심. 에우로페는 아름다움에 반해 같이 놀다가 위에 올라탐. 그러니 제우스가 빠르게 해변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납치해버림.

에우로페: 아게노르의 딸, 시돈의 공주

젤로스: 인비디아. 질투 혹은 질투의 여신. 안색 창백, 마름. 사팔뜨기, 군데군데 썩고 가슴은 멍듬. 남이 고통받을 때만 미소 짓고 잠을 모름. 힘의 묘사는 115pg

121pg 카드모스의 망명과 테바이 건설: 제우스에게 납치되어 에우로페가 행방불명되자 아게노르는 아들인 카드모스를 시켜 찾아오라했음. 못찾으면 오지 말라함. 그래서 아폴로에게 어칼지 묻자 암소를 따라가서 앉는 곳에 성을 지으라는 신탁을 받고 그렇게 함(암소 묘사 있음). 근데 제사 지내려고 부하들이 숲에서 물뜨려 하는데 큰뱀(묘사 있음)한테 물려 죽음. 카드모스가 큰뱀이랑 싸워서 이김. 그러자 후에 너가 뱀이 될거라는 예언 들음. 아테나가 내려와 땅을 갈고 왕뱀의 이빨을 뽑아 뿌리면 새 백성이 날 것이라 함. 그리 했더니 흙에서 무사(묘사 있음)들이 솟아남. 무사들이 서로 싸우고 5마리만 남자 그만 싸우고 성을 지음. 이렇게 테바이가 지어지고 거기에서 잘 살다가 번성한 만큼 자손이 많았는데 자손들이 카드모스를 상심하게 함.

카드모스: 에우로페의 아비 아게노르의 아들. 사자 가죽 방패, 창날이 빛나는 장창, 투창, 미더운 용기. 수호신은 아테나, 테바이의 성을 다스림.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딸 하르모니아와 혼인함

아레스: 마르스, 전쟁의 신

아프로디테: 베누스, 사랑과 애욕의 여신

128pg 디아나와 악타이온: 자신의 동료들과 사냥을 하던 악타이온(카드모스의 손주)은 실수로 가르가피에, 아르테미스의 성소에 들어가 길을 잃고 서성이다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것을 봄. 활이 있었다면 쐈겠지만 없어서 물을 뿌리며 저주하니 악타이온은 사슴으로 변해버렸고, 나가서 자신의 사냥개(묘사 있음)에게 들켜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찢겨 죽음.

134pg 유피테르와 세멜레: 위의 얘기를 신들이 논할 때 헤라는 아게노르 집안에 재앙이 내린 것에 고소해함. 그러다가 제우스와 만나고 있는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를 떠올리고 빡쳐함. 그래서 내려가서 노파(세멜레의 유모 베로에)로 둔갑해 세멜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우스가 거짓말하는 사내일 수 있으니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해라라고 함. 세멜레는 요청을 하게 됐고, 제우스는 앞서 스틱스에 맹세하고 이뤄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가 보여줌. 세멜레는 신의 광휘를 견디지 못하고 새카맣게 타 죽었고, 제우스는 세멜레의 복내에 있던 아기를 꺼내어 허벅다리에 넣어 키우다가 후에 이노에게 맡겨 은밀하게 기르게 함. 뉘사(인도에 있던 것 같은 산 이름)에서 길러졌는데 요정들은 아이를 동굴에 숨기고 우유로 길러 디오뉘소스(뉘사의 제우스)가 됨.

제우스: 유피테르, 신들의 왕. 사실상 세계의 왕으로 거의 전지전능하고 뭐 맨날 영광 돌림 사람들이. 벼락도 여러가지임 튀폰을 죽일 때 쓴 개쎈 벼락이랑 퀴클롭스가 만든 덜 센 벼락(137pg 에 묘사있음).

139pg 양성의 쾌락을 경험한 테이레시아스: 제우스는 신주를 마시며 헤라와 떠들다가 사랑에서 여자가 더 쾌락을 경험한다고 말함. 헤라는 아니라 하고 결국 양성이 되어본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봄. 테이레시아스는 제우스의 편을 들었고, 이를 들은 헤라가 화가 나 그를 장님으로 만듦. 불쌍하지만 한 신이 매긴 죗값을 다른 신이 벗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제우스는 그에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눈을 줌.

테이레시아스: 예언가. 전조를 읽는 자. 산길을 가다가 굵은 뱀 두마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지팡이로 때려 죽였는데, 이때 여자가 되어 7년을 살았고 8년째 되는 해의 어느날 똑 같은 뱀이 뒤엉킨 것을 보고 또 때려(죽이지는 않고 때리기만 한듯) 남성으로 되돌아옴. 헤라에 의해 장님이 됐지만 제우스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눈을 줌. 근데 아테나가 자신의 욕장을 엿본 테이레시아스를 괘씸하게 여겨 눈을 빼앗고 마음의 눈을 주었다는 전설도 있음.

디오뉘소스: 뉘사의 제우스. 제우스의 아들이며 뉘사에서 길러졌기 때문. 거듭 태어난 자(어미의 배와 아버지의 허벅다리에서)로 폴뤼고노스라는 별명이 있음.